

# Brilliant Ideas Episode #10: 엘렌 갤러거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조율하는 예술가



**DREAM GIRL**—Your hair-do comes  
alive with radiant charm thanks  
to our exclusive upsweep of clus-

# 반복을 통한 의미의 무한증식



“장미는 장미라서 장미다(This is a rose is a rose).” 마치 말장난처럼 반복되는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가 중 한 명인 거트루드 스타인 (Gertrude Stein, 1874-1946)의 문장으로 반복기법을 보여줍니다. 스타인의 영향으로 반복과 수정을 자신의 작업에 투영한 예술가가 바로 엘렌 갤러거(Ellen Gallagher) 입니

이러한 반복은 레이어가 계속해서 중첩되고 쌓임에 따라 다양하고 열린 의미로 나아감을 암시합니다. 블룸버그와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Brilliant Ideas 열 번째 에피소드는 갤러거가 말하는 예술, 반복이 만들어주는 메시지와 의미, 의미들의 끝없는 나열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그의 작품 <Paper cup>(1996)이나 <Pomp-Bang>(2003)에는 특히 느슨한 선들 혹은 저부조 조형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구상과 추상, 그 긴장감 사이에서



“내 작업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호(sign)를 일대일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종이라는 특수한 기호에 압도당해서 작품 재료를 형식 그 자체로 읽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배경과 무관해서 본다면 반복된 기호들은 변하기 쉽습니다. 즉 기호들의 변덕입니다. 이것이 내 작품에서 인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략) 변덕, 주목, 기쁨, 노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는 그러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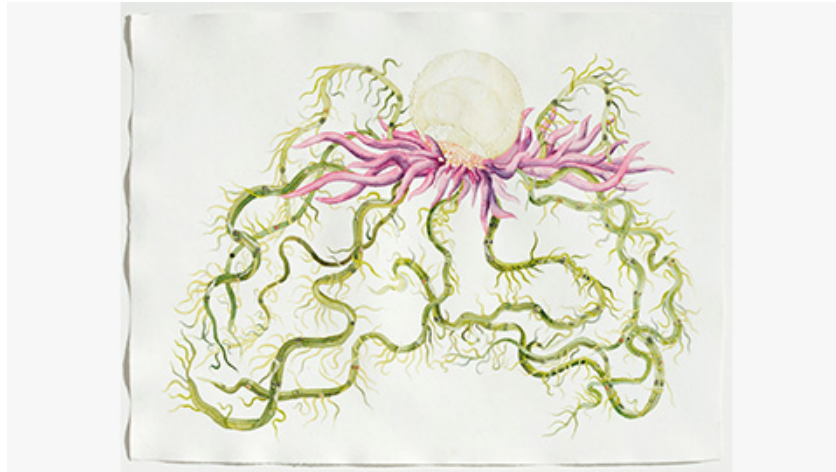
그는 이처럼 위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들을 미니멀리즘의 추상적 개념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투영되어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나아가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조개껍데기로부터 시작해줄길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는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의 긴장감 안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갤러거는 아일랜드 출신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인 아버지라는 배경으로 인해 인종과 관련된 성(gender)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작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거 작품의 흥미로운 점은 그 스스로가 ‘젠더’라는 특정한 한가지의 주제로 해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이 <Deluxe>(2004-5)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수집한 30~70년대 잡지를 활용합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을 타깃으로 한 가발이나 피부 크림 광고들을 선별해 콜라주 기법으로 재생산합니다. 콜라주 작업에는 플라스틱인(Plasticine)이라는 노란색 유토로 광고 속 여성에게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백인 문화에 스며들려는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백 이미지와 노란색 유토의 이질적인 조화는 불안한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광고라는 콘텐츠 자체가 소비자를 향상해주기 위해 제품을 소개한다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흑인보다 백인문화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반면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작품과 이러한 의미의 연결을 지양하려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 회화를 넘어서는 회화



작품 <Bird in Hand>(2006)는 프린트 메이킹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조각들과 플러스티신, 거친 크리스탈 돌, 은색 물감과 금 잎사귀들이 작품 안에 녹아 들어가 여러 겹의 이미지들이 부딪히며 구성됩니다.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수수께끼의 절름발이 주인공은 흑인 선원처럼 보이는데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한 아프리카 서쪽 해안 카보베르데(Cape Verde Islands)의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설 『모비딕(Moby-Dick)』(1851)에 나오는 선장 아합(Ahab)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프린트 메이킹 기법에 나타난 이미지들과 엮이면서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니다. 『에보니(Ebony)』, 『우리의 세계(Our World)』, 『세피아(Sepia)』 같은 과거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물의 광고 이미지를 메이킹 기법으로 표현한 이미지 위에 나타내게 하여 작품을 기술과 과학, 역사적인 이야기가 같이 버무려진 조형물로 변화시킵니다. 관람객들은 책장을 넘겼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내용을 이해하듯이 각각의 의미를 짚어어가며 다각도로 구성해보는 또 다른 형태의 회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수공예

갤러지가 어린 시절 거주했던 곳은 해변이 있는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입니다. 작가는 그곳에 가난한 이민자들이 많았고 그들 대부분이 노동하며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또한 작업함에 있어서 직접 수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령 그는 선원들이 조개껍데기나 고래 뼈, 상아 등에 조각을 새겨 넣어 만드는 ‘스크림쇼(Scrimshaw)’를 자신만의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공포스럽고 압도당하는 황량한 바다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집중해 깎아서 만드는 그들을 상상하며 나의 새로운 스크림쇼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갤러지의 스크림쇼는 두꺼운 수채화 종이에 있는 이미지를 깎아서 그 위에 연필이나 수채화 물감, 잉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2001년부터 제작한 ‘Watery Ecstatic’ 시리즈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작품에서 묘사한 해양 생물은 드래그 시야(Drexciya) 신화에 나오는 생물체입니다. 항해 도중 자살하거나 살해 또는 서서히 죽어가는 흑인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의 내용은 보는 이에게 의미심장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려지거나 프린팅된 이미지들을 스캔해 다시 출력하는 프린트 메이킹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 기술은 그의 작품을 단순한 회화 작업이 아닌 수공예적 작업으로 변형시킵니다. 변형된 회화는 기존의 단순한 회화와는 달리 여러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읽히는 기능을 부여 받습니다.



적 기술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작품은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열린 해석과 다양한 상상을 펼치게 하는 그의 작업은 결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서사적 구성과 상징적 기호, 그리고 추상적 형태 속에서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작품을 접하게 되고 그들만의 감동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사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풍부한 감정들을 생산하게 해주기에 그의 작품은 더욱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 with ARTINPOST



**Ellen Gallagher, <DeLuxe> installation view, 2004-5**

Deutsche Bank Collection. © Ellen Gallagher,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Zurich London

## Profile



1965년생 엘렌 갤러거(Ellen Gallagher)는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로, 수수께끼 같은 실험적인 이미지들을 선호합니다. 흔히 광고에서 봤을 법한 익숙한 이미지들을 격자구조로 배치하는 시리즈를 주로 선보이는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신의 배경 때문인지 인종과 민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관심이 많으며, 아버지의 문화로 대표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미지를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시킵니다.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통방울 같은 눈과 두툼한 입술을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미지 위에 패션잡지에서 봄 직한 여성의 특이한 헤어 스타일 광고나 가발, 미용제품 이미지들을 반복해서 얹어내는 것도 그의 특징입니다. 격자 안 개별 작품들은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등장인물 역시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종종 인종적인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의 목적은 다양한 재료를 골라내고 모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